



나왔다 하면 우승  
박성현 '1인 천하'  
8면

# 스포츠동아

2016년 4월 25일 월요일 sportsdonga.com 20판

프로야구 경기 결과		(24일)
점심	한화	1 : 5 두산
문학	NC	2 : 3 SK
고척	LG	5 : 3 넥센
대구	kt	0 : 6 삼성
사직	KIA	11 : 4 롯데



6월 일본 시청자를 만나는 '태양의 후예' 주연 송중기가 22일 홍콩에서 열린 '디오르 블 2016-2017 겨울 컬렉션 패션쇼'에 참석해 아시아권 최재진의 질문 세례를 받고 있다.

AP-뉴시스

## '태양의 후예' 일본 홀린다

日 CS채널 위성극장 6월21일 첫 방송

드라마 '태양의 후예'가 6월21일 일본 안방극장에 선보인다. '태양의 후예'는 국내외에서 한창 반응이 뜨거웠던 지난달 일본 CS채널 위성극장이 6월 방송을 결정한 뒤 최근 21일 밤 11시로 날짜와 시간을 최종 확정했다. 6일 홍콩 Viu TV 방송 이후 일본에서 두 번째로 해외 시청자와 정식으로 만난다.

'태양의 후예'는 이미 초반부터 일본 반응이 높았다. 특히 최근 몇 년 사이 일본의 우경화 경향과 함께 '협한류' 시각이 거세지면서 한국드라마가 설 자리가 줄어들었던 상황이라는 점에서 이는 한류 열기의 재점화 여부에 대한 또 다른 잣대가 되기도 했다. '태양의 후예'가 10만 달러 이하로 떨어졌던 수출가를 다시 끌어 올리며 총 16부작을 20억원에 판매한 것도 전망을 밝게 한다.

이미 현지 누리꾼들은 SNS와 블로그에 자막 요청 글을 올리는 등 일찌감치 '태양의 후예'에 관심을 보였다. 방송 결정 이후 "빨리 6월이 왔으면 좋겠다"며 "중국에서처럼 편집되지 않길 바란다"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그러나 드라마가 종영해 이야기의 결말이 알려졌고, 인터넷을 통해 하이라이트 영상 등이 다수 공개돼 초반보다 기대감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하지만 영국 공영방송 BBC가 언급했듯 '태양의 후예'가 아시아에서 광범위한 인기를 끌 수 있었던 요인 중 하나가 '군대 로맨스'라는 점에 주목하는 시선도 있다. 그동안 인기를 끌었던 트렌드물이나 멜로 장르의 드라마와는 또 다른 독특한 매력을 느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이란 전망이 제기된다. 이에 따라 방송가는 '태양의 후예'의 일본 방송 이후 한류 열기가 다시 점화할지 주목하고 있다.

한편 제작사 NEW와 KBS 해외 마케팅팀 측은 "홍콩과 일본 외에는 아직 방송이 결정된 곳은 없다. 중국은 TV 방송을 위해서는 사전심의를 한 차례 더 받아야 하는 과정이 따른다"고 말했다.

백솔미 기자 bsm@donga.com

편집 | 고희기 기자 ico@donga.com

## 박주영 극장골…6연승 서울 찬가



FC서울 박주영(왼쪽 3번체)이 24일 울산문수경기장에서 벌어진 울산현대와의 K리그 클래식 7리운드 원정경기 후반 47분 결승골을 터트린 뒤 동료들과 기쁨을 나누고 있다. 데얀(오른쪽 끝)의 선제골과 박주영의 결승골에 힘입어 2-1로 이긴 서울은 6연승으로 선두를 굳건히 지켰다.

울산 | 김민성 기자 marineboy@donga.com

### FC서울, 거침없는 선두 독주

데얀 선제골·아드리아노 도움 동반 활약  
승리 부르는 승리…역대 최다 연승 도전



FC서울의 상승세가  
거침이 없다. 서울은  
24일 울산문수경기장  
에서 열린 '현대오일  
뱅크 K리그 클래식 2016' 7리운드 울산현대  
와의 원정경기에서 데얀(3호)-박주영(4호)  
의 득점포를 앞세워 2-1로 이겼다. 전북현대  
와의 개막전 0-1 패배 이후 6연승을 질주한  
서울(승점 18)은 같은 시각 상주상무와  
2-2로 비기는 데 그친 2위 전북(3승4무·승점  
13)에 승점 5점차로 달아나며 선두독주체제  
를 갖췄다.

#### ● '아·데·박 트리오' 동시 출전, 승부수 통했다!

서울은 전반 9분 울산 수비진의 실수를 틈  
타 선제골을 뽑았다. 울산 강민수의 볼 처리  
미숙으로 얻은 역습 찬스에서 아드리아노가  
빈 공간을 파고들던 데얀에게 패스했고, 데  
얀은 이를 놓치지 않았다. 전반 종료 직전 울  
산 김치곤에게 동점골을 내준 서울은 후반

들어 흐름을 넘겨주며 수차례 위기를 맞기도  
했다.

1-1 균형이 지속되던 후반 40분, 서울 최용  
수 감독은 승부수를 던졌다. 주세종을 빼고  
박주영을 투입해 '아·데·박(아드리아노-데얀  
-박주영) 트리오'를 한꺼번에 그라운드에 내  
보냈다. 결과는 대성공. 고요한의 도움을 받  
은 박주영은 후반 47분 폐널티 에어리어 안에  
서 오른발로 울산 골망을 훤히 들었다.

막강 화력을 자랑하는 '아·데·박 트리오'의  
동시 출장은 이날이 을 시즌 3번째. 개막전 전  
북전과 2016 아시아축구연맹( AFC ) 챔피언스  
리그 32강 조별리그 산동 루넝(중국)전에서

3명이 동반 출전한 적은 있지만, 이들 3종사

가 동시에 기용됐을 때 골이 터진 것은 이날  
이 처음이었다. 최 감독은 경기 전 '무승부보  
다 오히려 폐배가 낫다'고 말했다. 팀이 상승  
세를 타고 있지만 언젠가 고비가 올 것이고,  
승점 1을 쟁기는 무승부보다는 선수들의 정  
신 재무장을 위해 오히려 아픈 폐배가 낫다는  
얘기였다. 결국 '무승부는 필요 없다'는 각오  
가 이날 공격적 선수기용으로 이어졌고, 어느  
때보다 값진 승리를 낳았다.

#### ● 승리가 승리를 부른다!

별써 6연승이다. K리그 클래식(1부리그)

최다 연승기록인 2014년 전북, 2002~  
2003년 을산·성남일화의 9연승이 이제 가시  
권에 들어왔다. 원동력은 무엇일까. 최용수  
감독은 '선수들에게 최고의 선물은 승리다.  
(공격진이) 해결해줘야 할 때 해결해줄니 선  
수들이 피곤함도 잊고 경기를 즐길 수 있다"  
고 분석했다. 챔피언스리그를 병행하는 고된  
스케줄 속에 선수 교체폭을 최소화하면서도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는 것은 승리라는 값진  
열매가 계속 긍정적 결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  
이라는 말이다.

그 중심에는 'K리그 최강'으로 꼽히는 화  
려한 공격진이 버티고 있다. 클래식 7경기

(6승1패·16득점)와 챔피언스리그 5경기(4승  
1무·16득점) 등을 시즌 치른 12경기에서

32골을 몰아친 최강 공격진이 연승을 이끌면  
서 자신감이 싹텄고, 또 다른 승리를 부르고  
있는 것이다. 아드리아노가 5골로 클래식 득  
점 1위를 달리고 있는 가운데, '아·데·박 트  
리오'는 클래식에서 팀이 뽑은 16골 중 12골  
을 책임졌다. 이날 결승골의 주인공 박주영  
도 '찬스가 왔을 때 마무리를 해줄 것이라는  
기대가 있고, 그렇게 실제로 해주고 있어 어  
려운 경기를 계속 이길 수 있는 것 같다"고  
밝혔다.

▶김신우 사탕구니 부상 6면

울산 | 김도현 기자 dohoney@donga.com

## 김광현·장원준 '100승'

LG 히메네스 결승타…삼성 윤성환 3승째

SK 김광현(28·위 사진)과  
두산 장원준(31·아래)이 나  
란히 100승 고지에 올랐다.

김광현은 24일 인천SK행  
복드림구장에서 열린 '2016  
타이어뱅크 KBO리그' NC와  
의 홈경기에서 선발등판해 8이  
닝 4안타(2홈런 포함) 1사구  
6삼진 2실점으로 팀의 3-2 승  
리를 이끌었다. 시즌 3승째  
(2패)를 거둔 김광현은 이로  
써 2007년 SK에 입단한 뒤  
10시즌째에 개인통산 100승  
(역대 26번째) 고지를 밟게 됐  
다. 아울러 27세9개월2일의 나이로, 정민철  
(27세3개월2일) 선동열(27세7개월23일)에 이  
어 3번째로 어린 나이에 100승을 돌파했다. 좌  
완으로는 은퇴한 송진우(210승)와 삼성 장원준  
(109승)에 이어 역대 3번째인데, 나이로는 좌완  
최연소 100승 달성 투수가 됐다. SK 유니폼을  
입고 100승을 기록한 투수는 종전에 김원형(현  
SK 투수코치)이 있었지만, 김원형은 쌍방울에  
서 68승을 기록했다. 따라서 순수하게 SK에서  
만 100승을 기록한 투수는 김광현이 최초다.

이어 장원준이 잠실 한화전에서 100승을 달  
성했다. 장원준은 6.1이닝 2안타 2볼넷 6탈삼  
진 무실점으로 팀의 5-1 승리를 이끌면서 시즌  
3연승 무패를 달렸다. 이날 인천 경기는 오후  
2시에 먼저 열리고, 잠실 경기는 오후 5시 선대  
이나이트베이스볼로 펼쳐지면서 장원준은 김  
광현에 이어 역대 27번째(좌완 4번째) 100승  
투수가 됐다. 2004년 롯데에서 데뷔한 뒤 85승  
을 거둔 장원준은 지난해 두산으로 이적해  
11시즌(군복무 2012~2013년 제외)만에 100승  
고지를 밟게 됐다.

두산은 한화와의 3연전을 스윕하는 등 올 시  
즌 한화전에서만 6전승을 기록하며 시즌 14승  
1무4패로 단독선두를 질주했다. 반면 최하위  
한화는 시즌 3승16패(승률 0.158)로 두산과는  
11.5개임자나 벚어졌다.

LG는 고척에서 넥센에 5-3 역전승을 거두고  
5할 승률(9승9패)에 복귀했다. LG 루이스 히메  
네스는 0-2로 끌려가던 7회초 추격의 솔로홈런  
(시즌 9호), 3-3 동점이던 8회초 1사 1·3루서  
우종간 결승 적시타를 날렸다. 사직에서는 KI  
A가 홈런 2방을 포함해 장단 15안타를 폭발하  
며 롯데를 11-4로 대파했다. KIA 선발 지크스  
프루일은 7이닝 2실점으로 시즌 2승째(3패)를  
거뒀고, 최영필은 역대 최고령(41세11개월  
11일) 500경기 등판 기록을 세웠다. 대구에선  
삼성이 kt를 6-0으로 꺾고 2연패에서 벗어났  
다. 선발 윤성환은 7.2이닝 무실점으로 시즌  
3승째(1패)를 올렸다.

▶프로야구 관련기사 2·3·4·13면

이재국 기자 keystone@donga.com

주말의 프로축구 <23·24일> 서부 2 : 2 성남 수원 수원FC 0 : 0 인천 상주 상주 2 : 2 전북 광주 광주 1 : 1 수원 울산 울산 1 : 2 서울 포항 포항 0 : 1 전남

**라이나생명**

김지영이 콕!  
콕! 집어 추천하는 치아보험  
라이나 THE 건강한 치아보험!!! (비생신형)

전동 드라이버 + 칼 가위 5종세트  
상당만 받아도 무료증정!

(인 1회 증정에 한함)

## 오르지 않는 보험료에 보철! 충전! 신경·영구치 발거치료 까지!

생명보험협회 심의필 제2016-00285호(2016.02.02)

### 보장금액이 좋은 임플란트, 브릿지, 틀니치료 보장

- 임플란트 100만원, 브릿지 50만원, 틀니 100만원(특약 기입사)
- 임플란트 50만원, 브릿지 25만원, 틀니 50만원(특약 미기입사)
- 임플란트는 영구치 빙기 개당 연간 3개 한도, 틀니는 보철물당 연간 1개 한도 보장
- 기입 후 90일 경과 이후 영구치 빙기 후 그 자리에 치료 시 정기 보장, 2년 이내 지금 사용 발생 시 50%
- 56세~70세 고객은 보철치료보장특약에 기입할 수 없음

### 재료 상관없이, 개수 제한 없이 때우는 충전치료 보장

- 금, 세라미 12만원, 레진 5만원, 아말감 5만원
- 기입 후 90일 경과 이후 정액보장, 1년 이내 지금 사용 발생 시 50% 보장

\* 위 보장 내용은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 또는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를 원인으로 발생된 치료에 한해 보장합니다.

24시간  
무료상담 및 문의  
지금  
진회하세요

080-797-7700

### 금 등으로 덮어 씨우는 크리운치료 보장

- 크리운치료 20만원, 유치·영구치 각각 연간 3개 한도 보장
- 기입 후 90일 경과 이후 정액보장, 1년 이내 지금 사용 발생 시 50% 보장

### 자주하는 치수치료(신경치료), 영구치 빙기치료도 보장

- 치수치료 2만원, 영구치 빙기 시 2만원, 유치·영구치 각각 연간 3개 한도 보장

- 기입 후 90일 경과 이후 영구치 빙기 시 2만원, 유치·영구치 각각 연간 3개 한도 보장

### 보장을 더 받아도 민기 시 만기자금급 20만원 지급!

(만기 생존 시)

### 0세~70세까지 온 가족 가입 가능

#### [보험료 예시표]

구분	남자	여자
30세	26,200원	23,150원
40세	36,100원	29,450원
50세	53,150원	44,200원

\* 기준 : 가입금액 주계약 4,500만원 / 보험치료보장특약 5,000만원 / 보험기간 : 10